

## 내파(內破)의 시학: 미국 청교도의 예형론과 알레고리

강우성(한성대학교)

## 1

일찍이 미국의 청교도 문학전통을 상징주의로 파악한 피델슨(Charles Feidelson)에 따르면, 청교도 작품들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다양한 ‘섭리들’에 대한 언급은 제대로 된 문학적 구조를 획득하지 못한 ‘상징적 경험’(symbolic experience)의 기록이다(Feidelson 81). 여기서 상징적 경험이란 청교도들이 현실의 다양한 사건들을 단일한 총체성에 의해 미리 획정된 일화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흥미롭게도 문학적인 표현이나 모방보다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재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청교도들이 수사(rhetoric)보다 문법(grammar)과 논증(exposition)을 섭리에 더 부합하는 언어활동으로 간주해 왔음을 증명해 주는데, 호머(Homer)로 상징되는 이교도 고전문학에 대한 코튼 매더(Cotton Mather)의 혐오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런 사유구조에서 문학을 포함한 은유적 언어활동들은 위축되거나 논리학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하위범주로서만 의미를 부여받았을 뿐이다(Murphy 1-2; Feidelson 84). 신의 예정된 섭리가 일상의 사건들에서 의미를 갖는 최상의 방식으로 성찰(meditation)에 의한 논리적 분석을 정립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상징주의’는 언어를 통한 재현의 문제보다는 신을 정점으로 한 세계의 존재론적인 작동원리를 의미하는 쪽에 가까울 터이다. 미국 청교도들의 해석학이 알레고리의 다층적 의미구조보다 축자적(literal) 의미에 집착하는 동시에 성서와 현실간의 상징적 관계 및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미국 청교도들의 사유구조를 표현하는 예형론(typology)은 예표와 예표 혹은 예표와 그것의 의미 사이의 자의성이나 미끄러짐이 허용되지 않고 예표들이 형성하는 의미연쇄의 바깥이 존재하지 않는 닫힌 체계로서, 문학은 물론 알레고리에 내장된 의미의 산중(dissemination) 가능성에 매우 적대적이다.

그러나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에 내포된 ‘상징적 경험’은 성서의 해석체계를 넘어서 신대륙의 역사와 현실을 해석하는 인식의 준거로 기능하면서 색다른 함의를 품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텍스트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섭리가 구현된 텍스트로서의 성서와 미국의 구체적 역사 및 현실간의 축자적 관련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것이다. 그런데 예형론이 성서와 신대륙 현실간의 상징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서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대륙의 역사를 이미 그 자체 내에 기입(inscribe)하고 지칭(refer)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이 축자적 기입과 지칭관계야말로 논리적 분석이 들어설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레고리적인 다층의 의미망을 상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성서의 이스라엘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지칭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역사 자체가 신대륙 아메리카의 성립에서 완성되는 역사였다고 다시 씌어져야(re-inscribe)만 하는데, 다시 씌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의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튼 매더를 비롯한 예형론의 주창자들이 사건과 관념간의 연관을 통한 다층적 해석을 전제하는 알레고리를 억압하고 축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신대륙 현실과 성서간의 구조적 합치보다는 그 둘 간의 존재론적 불일치를 더 확연하게 드러낼 확률이 크다. 그렇다면 텍스트와 현실, 관념과 사건간의 근본적 거리 및 불일치를 인식의 걸림돌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포섭하는 방식은 과연 없을까?

이 글이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에 내재된 알레고리의 가능성을 청교도 시인들을 통해 탐구하려는 데에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예형론을 상징주의와 연관시킨 논의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둘 때, 예형론과 알레고리의 관계를 집중 조명한 맷슨(Deborah L. Madsen)의 『미국의 알레고리』(*Allegory in America*)는 알레고리와 예형론을 근본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는 알레고리가 전부 예형론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형론은 곧 알레고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은 불확정성과 자유로운 사유를 부추긴다는 점 때문에 자체 내의 알레고리적 계기의 발현을 제한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의] 약속과 완성이라는 확고한 패턴으로 모든 기호들을 포섭하는 예형론의 실행에 복속”시켰다고 지적한다(Madsen 3). 미국 청교도들의 담론에서 예형론이 차지하는 상징적·수사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버코비치(Sacvan Bercovitch)와는 달리, 맷슨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예형론의 억압적인 위력이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예형론이 자체 내에서 미국의 국가적 운명을 구조적 혹은 탈구조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계기들을 찾아보려는 데 있다. 그가 에머슨, 호손, 멜빌의 작품을 자신의 논의의 핵심근거로 삼으면서도 버코비치와 달리 ‘포섭’(co-optation)이 아니라 ‘결정불가능성’(indeterminacy)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도 그 때문이다(Madsen 4).

맷슨의 알레고리 개념은 해석의 중층결정--축자적 의미에서 정치(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성서적(anagogical) 의미로 확대되는--보다는 상징(symbol)과 대비되어 현실과 관념 간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괴리를 뜻하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이나 드 만(Paul de Man)의 알레고리론과 밀착되어 있어서, 청교도들이 예형론에 담아내고자 하는 단일한 의미가 예형론적 의미화 자체의 결정불가능성으로 인해 자기해체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낸다.<sup>1)</sup> 그는 뉴잉글랜드의 예형론에서 “성스러운 것은 어떠한 지상의 기호로도 알 수 없고 오로지 은유만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종교적인 현실을 이해 가능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Madsen 46)고 주장한다. 이는 일종의 ‘인식론적 회의론’(epistemological scepticism)으로서, 신의 섭리를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은유와 유추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만 있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여기서 맷슨이 말하는 은유와 유추는 피델슨이 말하는 ‘상징주의’와 그다지 다르지 않지만, 청교도 경험의 핵심을 신의 섭리와 인간의 언어적 인식 간의 근본적인 괴리에 대한 회의론에 두고 그것을 알레고리라는 개념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 맷슨 식의 알레고리론으로 청교도의 경험을 해석하면, 신대륙의 현실과 성서간의 축자적 의미망을 구축하는 예형론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거듭 의심하거나 예정설을 믿으면서도 신의 섭리의 구현에 끊임없이 회의하는 양상을 설득력있게 해명할 수 있다.

그런데 벤야민 식으로 말해 “자신이 재현하는 것의 바로 그 존재하지 않음”(the non-being of what it represents. Benjamin 186)을 뜻하는 맷슨의 알레고리 개념의 타당성과는 별도로,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이 그가 의미하는 알레고리와 과연 대동소이한 인식론에 근거한 것이냐하는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아울러 알레고리가 근본적으로 ‘결정불가능

1) 이런 맥락에서 수전 널러(Susanne Knaller)는 벤야민 식의 알레고리 개념이 “언어와 창조의 세계간의 동질적인 통일성을 파괴해버린 타락(the Fall) 이후의 세계상황에 부합한다”(Knaller 86)고 갈파하면서, 현대와 같은 알레고리적 세계에서 구원의 가능성은 집단적 희망에서 단자론(monadology)으로 옮겨갔으며 그것조차 특정한 고편화된 경험들을 절대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일은 찰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찰나적 통일성은 “상징적인 총체성을 향한 의지에 근거를 두기보다 알레고리적인 관찰방식의 산물”(87)이라는 것이다. 드 만의 알레고리론에 대해서는 de Man과 신광현 참조.

성의 문학형식'이라는 그의 발상도 청교도에서 비롯된 미국문학의 특성을 얘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애매성'(ambiguity)이라는 지표를 일종의 '장르론'으로 발전시킨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맷슨의 주장이 예형론에 관한 매우 독창적인 해석인 것은 틀림없지만, '애매성'이 종종 미국문학의 어떤 불변적 특성으로 고착되었듯이 알레고리의 결정불가능성을 독특한 미국문학의 형식으로 간주하는 입장은 특정한 청교도 텍스트들--예를 들어 윌리엄즈(Roger Williams)나 허친슨(Anne Hutchinson)--중심의 '인식론적 회의론'에서 발원하는 알레고리 문학에서 미국문학의 특성을 연역할 가능성도 높다. 그가 거론하는 호손과 멜빌 뿐만 아니라 에머슨의 작품에도 맷슨이 말한 '알레고리'로 설명이 가능한 대목이 많지만, 그 점을 근거로 하여 알레고리가 그들 작품의 미국적 특성을 결정하는 근거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알레고리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된 맷슨의 예형론이 정작 미국 청교도들의 작품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이 못 된다는 경험적 사실이다. 17세기 중엽 이후 소위 예레미야식 탄가(jeremiad)를 통해 미국식 예형론을 정립한 인물들의 설교나 산문의 경우와는 달리, 청교도들의 시와 시학은 예형론의 전제 및 이념들을 의식하지 않거나 상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미국 예형론의 정수를 가장 시적으로 구현했다고 평가받는(Pearce 49, Brumm 103) 테일러(Edward Taylor)의 시들에 등장하는 불신과 회의의 목소리들이나 브래드스트리트(Anne Bradstreet)의 시에 나오는 육신의 고통에 대한 성찰들이 과연 얼마만큼 억압된 '알레고리'의 무의식적 분출로 볼 수 있는지 꽤 의심스럽다.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은 알레고리적 결정불가능성의 정치적 억압 및 그에 대한 반발이라는 잣대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더 복합적인 현상인 바, 이는 한편으로 보이지 않는 신의 '진리'와 성서에 표현된 '진리'간의 합치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에 드러난 '진리'와 그 '진리'의 표현수단으로서 인간 언어의 '은유성' 혹은 '비유성'이라는 문제를 도외시한 채 예형론을 활용한 미국 청교도들의 정신구조를 탐구하는 일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예형론과 알레고리의 관계는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이념 이전에 경험 및 경험의 해석구조와 관련된 일종의 존재론적 사안이라는 것이고, 특히 미국 청교도들의 시는 예형론에 함축된 '진리'를 미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수사학적인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해석의 지평인 예형론의 상징적 구조 자체를 문제 삼는 재현의 형식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브래드스트리트와 테일러의 시에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할 것은 가장 사적인 경험의 언어들이 가장 신적인 진리의 언어들과 만나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한 사태들의 의미이다. 그들 개인의 내밀한 세계에 투과된 청교도 공동체의 진리란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 2

예형론과 알레고리의 관계에 대한 맷슨의 구분법을 달리 풀어보면, 미국의 예형론은 성서의 해석체계에서 전통적으로 하위범주에 속했던 예형론이 그보다 상위의 알레고리를 참칭한 셈이 된다. 그런데 맷슨의 개념을 예형론에 포섭되지 않는 알레고리적 사유의 전복가능성에 대한 언급으로 국한하기보다 왜 하필 매더를 비롯한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이 전통적인 알레고리를 배척하고 '상징' 혹은 '은유'를 더 적합한 표현형식으로 간주했는지에 대한 반증으로 읽어 볼 필요도 있다. 맷슨은 미국의 예형론이 알레고리와의 친연성을 거부하는 점에서 알레고리의 본질적 결정불가능성에 대한 청교도적 불안을 표현한다고 보는데(Madsen 57), 청교도 시인 자신들이 과연 자신들의 경험의 핵심을 맷슨 식 알레고리에 함축된 '인식론적

회의론'의 시각에서 평가했는지도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일 뿐더러 알레고리만이 그러한 실존적 불안의 표시인지도 의문이 든다. 데일리(Robert Daly)의 주장에 따르면, 청교도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진리를 눈에 보이는 자연물을 통해 상찬할 의무가 있고 이는 곧 예형론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형상과 언어를 통해 창조주를 재현하는 행위는 항상 우상화로 빠질 위험을 동반한다. 청교도들이 문학을 비롯한 은유 및 수사학적 행위에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알레고리를 배척한 것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청교도들에게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의 직접적 재현, 즉 가톨릭과 국교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종교적 이미지들도 모두 우상화였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에 의해 신과 연결된 신의 창조에 관한 이미지들은 분명 금지되지 않았다. (Daly 140)

출애굽기의 20장 4절과 5절에 근거를 둔, 신의 형상 및 그와 흡사한 재현물에 대한 금지조항에서 유래하는 이 난처함은 분명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이 신의 존재를 재현하는 행위에 내재된 두려움(fear)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보자면 언어를 통해 신의 진리를 드러내려는 재현행위인 청교도들의 시는 형편없이 왜곡된 재현이거나 성서의 진리의 논증(dialectic)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수사의 지위밖에는 부여받지 못한다. 요컨대 시(문학)의 언어가 행하는 '재현'은 항상 '우상화'의 위험에 처해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아서 군더더기 없는 '분명한 문체'(plain style)로 진리를 표현하려는 청교도들의 문학관과 그다지 부합하는 형식은 아니다. 청교도들에게 시는 위글즈워스(Michael Wigglesworth)의 생각처럼 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최고의 언어사용인 동시에 매디의 주장처럼 가장 왜곡의 소지가 많은 감각세계(sensible world)의 행위로서 어디까지나 엄격한 제한의 대상이기도 하다. 시는 청교도들에게 진리의 창조도 아니고 진리의 장식품도 아닌 것으로서, 성서적 논증의 엄격한 제한을 전제로 하는 한에서 이미 입증된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인정받았다. 이 점에 대해 데일리는 “청교도 시학은 시인의 창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각과 발현을 다루었고, 또한 청교도 시가 단순히 수사적인 치장이라는 통념도 17세기보다는 18세기 미국 시인들의 달콤한 진부함이나 더 어울린다”(Daly 146)고 말한다. 시는 성서에 담긴 신의 섭리를 재현하는 중요한 표현수단이되 감각적인 차원과 밀접한 은유적 언어 사용과 불가분 연관되기 때문에 시 자체의 향유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목적론적으로 제한된 영역만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엄격한 제한의 대상이자 섭리 전달의 기능이 특히 중시된 청교도들의 시에서 맺슨이 뜻하는 바 신의 섭리에 대한 알레고리적 결정불가능성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식 설교가 설교하는 신대륙의 예외적인 역사적 사명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청교도들의 무수한 명상과 성찰은 예형론이라는 해석지평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브래드 스트리트의 『관찰』(Contemplations)의 첫 부분을 보면, 세상 만물의 풍요로움을 나열한 뒤 시의 화자는 이러한 자연물에 깃든 섭리에 대해 얘기한다.

무엇을 바랄지 모르지만, 분명 나는 생각했네  
이승에 저 많은 창대함이 머문다면  
그분의 권능과 아름다움 그의 역사(役事)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창대하실까?  
분명 그분은 선이고 지혜이며 영광이고 빛이시라  
이 아랫 세상 풍요하게 수놓으셨네.

지상보다 천상이 여기에 있어, 겨울도 밤도 없네.  
 I wist not what to wish, yet sure thought I,  
 If so much excellence abide below,  
 How excellent is He that dwells on high,  
 Whose power and beauty by his works we know?  
 Sure he is goodness, wisdom, glory, light,  
 That hath this under world so richly dight;  
 More heaven than earth was here, no winter and no night. (Bradstreet 205; ll. 9-15)

이 시는 자연물의 양태를 세밀히 관찰하고 그러한 관찰을 통해 신의 섭리가 만물에 정당한 원리임을 노래하는 청교도들의 ‘피조물로부터의 성찰’(meditations from the nature)이라는 예형론의 한 표현방식과 맞닿아있다. 지상의 창대함은 신의 창대함과 유비되고 화자는 즐거운 세상의 풍요로움에서 창조의 위대함을 유추하는 것이다. 화자가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하는 대상은 지상에 펼쳐진 사계절의 변화, 메뚜기와 귀뚜라미, 흐르는 실개천, 물고기, 피꼬리 같은 “즐거움의 세상”(this world of pleasure l. 219)이지만 그 대상들에서 궁극적으로 읽어 내는 것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11연)나 카인과 아벨 이야기의 교훈(12-14연)이며 “비참함과 죄와 슬픔으로 뭉친 이 덩어리”(this lump of wretchedness, of sin and sorrow l. 205), 즉 유한한 인간의 숙명(mortality)이다. 예형론이 한 텍스트(구약)와 다른 텍스트(신약) 간에 상호텍스트성 혹은 텍스트(성서)와 현실(신대륙)간의 축자적 조응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시에서는 그런 예형론적 상징보다는 자연과 섭리, 지상의 즐거움이 천상의 질서와 성서의 이야기를 유비적 혹은 은유적으로 연결하는 자연스런 심리 상태가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시인은 속세의 자연물에서 천국에 맞먹는 찬란함과 영광을 느끼고 이것을 통해 내세의 모습을 유추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천상과 지상의 존재론적 거리는 엄연하다.

죽어 없어질 것들의 치명적 파멸인 시간,  
 망각의 장막들을 왕들에게 드리우는 시간이어.  
 왕들의 화려한 기념비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은 기록도 없이 잊혀지네.  
 O Time the fatal wrack of mortal things,  
 That draws oblivion's curtains over kings;  
 Their sumptuous monuments, men know them not,  
 Their names without a record are forgot. (ll. 226-29)

상징적 유추의 완전한 성찰을 가로막는 시간의 엄연함은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해도 실존적 두려움을 불러 일으킨다. 게다가 이러한 유추의 올바름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 줄 근거가 인간의 사유능력 및 언어표현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한다. 이렇듯 브래드스트릿에게서 상징적 유추의 ‘결정불가능성’은 예형론적인 맥락과 충돌하는 실존적 충돌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영원한 신의 섭리와 인간의 유한성 간의 구조적 불일치라는 알레고리적 계기의 발현에 가깝다.

그렇다면 브래드스트릿의 시에서 예형론은 억압된 알레고리의 확정불가능성으로 나타난다기보다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와 관계된 ‘행복한 모순’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신의 섭리는 유추할 수 있을 뿐이고 인간의 언어로는 영원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그에게 문학을 포함한 재현행위의 근본적인 쓸모없음을 의미하기보다 바로 그 재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 점은 그의 시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pain)과 죽음의 경험들이 거듭된 좌절을 통해 도저히 불가해한 신의 섭리를 증좌하는 물리적 증거들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 가까운 이들의 죽음이 시심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태어날 아이를 두고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거나(“Before the Birth of One of Her Children”) 열병에서부터 졸도, 발작에 관한 명상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는 신실한 청교도 여성으로서 시와 문학을 통해 예형론적 세계관을 충실히 표현하면서도 반복적인 육체의 고통 속에서 섭리의 불가해성에 의지해야만 하는 고통스런 자괴의 순간들을 응시한다. 그에게 신의 섭리를 믿는 행위는 마치 긴 육체적 진통 끝의 출산이나 죽음을 목격하는 행위처럼 내세와 절연된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을 통해서 가장 강렬하게 체험된다. 이는 그의 시를 청교도 여성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볼 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가령 「서시」(“Prologue”) 같은 시에서 시인은 현세의 질서를 남성중심적인 것으로 직접 부정하기보다 그것이 표방하는 최상의 질서 및 탁발한 섭리가 실은 여성 같은 소수에게 일말의 관용조차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논리임을 내파(內破)하는 쪽에 가깝다.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인이, 여자는 여자가 되게 두오,  
남자들에 우선권이 있고 여전히 탁월하니  
부당하게 싸움 거는 일 부질없을 따름.  
남자들은 최상을 이룰 수 있고, 여자들은 그것 잘 알고 있으니  
모든 것 하나하나에 탁발함은 그대들의 것  
다만 우리들이 이룬 것들 조금만 인정해주오.  
Let Greeks be Greeks, and women what they are  
Men have precedency and still excell,  
It is but vain unjustly to wage warre;  
Men can do best, and women know it well  
Preheminence in all and each is yours;  
Yet grant some small acknowledgement of ours. (Bradstreet 16, ll. 39-44)

“모든 것 하나하나에 탁발함이 그대들의 것”이기에 “부당하게 싸움을 거는 일 부질없을 따름”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표면적으로 시인의 목소리는 남성 위주의 현실 질서를 적극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런 선선한 인정의 배후에는 “내 손이 바느질에나 더 어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흠잡는 혀에는 내가 불쾌하리”(ll. 27-8)라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돼도 여자의 위트는 나아지지 않으리/ 사람들은 그게 흠쳐온 것이거나 우연이라 말하겠지”(ll. 31-2)라는 자조 섞인 독설에 이르면 심상치 않은 여운이 남는다. 더구나 “만일 그대들의 안목이 이 소박한 깃구들에/ 백리향이나 파슬리 화환이라도 내려 준다면 나는 월계관을 바라지 않으리”(ll. 47-8)라는 대목에 이르면 비록 존 코튼(John Cotton)과 논쟁하는 허친슨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치 않는 남성들의 편협성이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판된다. 어쩌면 브래드스트리트는 ‘피조물을 통한 성찰’이라는 청교도들의 의무가 여성들의 시적인 위트에서 더 분명히 수행된다는 역설을 웅변하는 듯하고, 마치 의도적인 ‘줄여말하기’(understatement)를 통해 신의 섭리를 독점한다고 믿는 청교도사회의 남성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듯하다.

예형론의 포섭에 저항하는 알레고리적 계기의 드러남은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형

태로 거둬 드리난다. 자신의 불탄 집을 보며 화자가 무심히 떠올리는 상념들이 등장하는 「불탄 집에 부쳐」(“Verses upon the Burning of our House”)를 보면, 마지막의 예정된 결말로 가기 전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여기 저 트렁크가, 저기 저 캐시가 있었고  
 저기에 내가 가장 아꼈던 저장고가 있었네.  
 내 정겨운 물건들이 잿더미로 놓여 있으니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네.  
 그대의 지붕 밑에 아무런 손님 앉지 못하고  
 그대의 탁자에서 한 조각도 먹지 못하리니.  
 Here stood that Trunk, and there that chest;  
 There lay that store I counted best:  
 My pleasant things in ashes lye,  
 And then behold no more shall I.  
 Under thy roof no guest shall sitt,  
 Nor at thy Table eat a bitt. (Bradstreet 292, ll. 29-34)

이 대목을 포함한 시 전체의 어조는 타버린 집과 가재도구들이 아깝기는 하지만 내세에 더 좋은 집이 있으니 속세의 물욕이란 버리자는 전형적인 예형론의 담론구조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 대목에 드러나는 애착을 단순히 ‘물욕’이요 ‘허영’(Adeiu, Adeiu; All's vanity l. 40)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시인이 타버린 잿더미에서 너무나 깊은 ‘기억’과 ‘역사’를 새겨 읽고 있다. 자신의 분신처럼 손때 묻고 애뜻한 기억이 아로새겨진 물건들--그래서 이미 단순한 물건을 초월한--에 대한 애정을 앗아간 화재가 아쉽지만 그런 아쉬움의 토로를 기겁케 불가해한 신의 섭리로 풀어내는 과정이 잔잔하게 그려지는데,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네”(l. 57)라는 대목에 이르면 보장된 내세에 대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못내 서운한 시인의 속내가 언뜻 드러난다. 이런 서운함이야말로 그가 ‘손님’과의 정다운 대화나 그들과 두런두런 함께할 정겨운 이야기에서 찾았던 청교도 선민 공동체의 가족적인 가치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가장 진솔한 비판이 아닐까. 어떻게 읽으면 이 대목의 시인의 어조는 마치 자신이 가장 아꼈던 뉴잉글랜드 선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타락에 대해 ‘불’의 심판을 해야만 했던 신의 탄식처럼 들리기도 한다.

여성시인의 목소리가 구현하는 이 ‘내과의 시학’은 맏슨이 의미하는 넓은 의미의 알레고리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며, 브래드스트릿을 포함한 청교도 시인들의 공통된 특징일 가능성이 많다. 가령 테일러의 『신의 결정』(*God's Determinations*)에서도 예형론의 지표들은 극화된 알레고리를 통해 드러나고, 특히 사탄은 악의 화신으로 축자화하기에는 매우 살아있고 복잡한 역할을 맡고 있다(강우성 35-36). 그는 무엇보다도 선민과의 협약에 대한 뉴잉글랜드인의 믿음을 조롱하고 시험함으로써 신에게 복수하는 역할을 하며, 인간이 신의 목소리를 직접 재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예형론의 대전제의 틈새에서 역설적이게도 예레미야 식 탄가에 등장하는 분노한 신의 목소리를 구현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성찰과 회개가 반복되는 구원의 불확정성에 지쳐 인간은 “가끔은 천국이나 지옥이 없었으면 하고 바라네/ 그렇게 되면 두려워할 일도 없을 테니”(Sometimes meethinks I wish, Oh! that there were/ No Heaven nor Hell. For then I need not feare. Taylor 82)라고 탄식하는 존재이며 사탄은 그런 인간을 ‘정신분석’하고 있다.

그대들의 은밀한 생각들을 보니 바로 이런 것,  
 신이 없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는 바로 그 바람.  
 혹은 신성함이 없으면 하는, 아니면  
 그대들이 부여받은 그 죄가 신성함이라면 하는.  
 I see thy secret thoughts: and such they bee,  
 That Wish there was no God, or I was Hee;  
 Or that there was no Holiness, unless  
 Those sins thou'rt given to, were Holiness. (Taylor 301, ll. 81-84)

예형론의 계관시인이라고도 할 테일러가 궁극적으로 극화하고자 하는 것은 사탄보다도 더 사악한 인간의 이러한 ‘내밀한’ 의심(doubt) 혹은 바람(wish) 그 자체라기보다 그런 바람이 불가해한 신의 목소리에 의해 재포섭되는 과정의 정당함이겠지만, 사탄의 ‘정신분석’은 그 자체로 실감나고 극적인 흥미를 일으킨다. 사탄의 알레고리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예형론이 전제하는 개심(conversion)의 반복구조--은총의 협약에서 극단적 불신과 부정으로 진행했다가 은총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유사변증구조--에 내재된 역설을 보여준다. 최종적인 개심의 극적인 성격이 부각되기 위해서 협약과 선민됨의 약속을 비롯한 예형론의 근본전제들에 대한 회의가 더욱 극단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예형론적인 구조 속에 포섭된 사탄의 극적인 알레고리가 독자들로 하여금 예정된 개심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고통스런 흔들림(wavering)에 더 공감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알레고리적인 계기들의 강렬함으로 인해 테일러가 동원하는 예표들은 역사적인 의미를 탈각하고 시인의--그리고 독자의--개인적 영혼의 상태에 대한 우화이자 은유로 이해된다는 것이다.<sup>2)</sup>

그렇다면 이렇게 사탄이 극화하는 극단적인 회의의 모습을 예형론의 논증적 구조가 억압하고 있는 알레고리적 결정불가능성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분출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유추와 은유 외에는 달리 섭리를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세계의 피조물과 언어를 통해 부단히 그 재현불가능의 섭리를 재현해야만 하는 모순된 명령이 바로 예형론의 구조적인 불가능성이자 가능성이라고 보아야할 듯싶다. 특히 청교도들의 예형론을 설교한 산문 담론들의 경우에는 미리 정립된 형식--예레미야식 설교로 불리는 탄가의 형식이나 개심 이야기--의 틀에 사탄이 정신분석하는 극단적인 일탈과 회의의 사례들을 한시적이지만 불가피한 단계로 구조적으로 포섭하는 일이 수월했다면,<sup>3)</sup> 청교도 시인들의 시에서는 그러한 특정한 역사적 해석으로서의 예형론의 담론이 표면화될수록 자연히 개인의 관찰 및 경험과는 거리가 먼 관념적·이데올로기적 해석이 부각되어 시로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난점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예형론의 ‘상징주의’가 부과될수록 시의 알레고리적 충동의 저항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인해 테일러의 시는 신의 섭리를 글로 써내는 작업에 대한 깊은 회의가 두드러진다. 켈러(Karl Keller)가 지적하듯이 테일러의 명상시(meditations)는 “글을 써야하는

2) 테일러의 예형론이 신대륙의 역사적 사명을 부각시키기보다 청교도 개개인의 영혼을 은유하는 변형된 예형론이자 일종의 확장된 은유의 계기임을 밝힌 선구적인 연구로는 Davis 참조.

3) 이 점은 로울랜드슨(Mary Rowlandson)의 『인디언 억류기』(Captive Narrative)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그의 이야기에서 인디언들의 잔혹함이 부각되고 그 고통의 경험을 예형론의 틀에서 해석하는 인크리즈 매더(Increase Mather)의 논증이 삽입되는 예형론적 구조는, 그가 인디언들과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로울랜드슨 개인의 영적 구원의 이야기로 읽히지는 것을 방해하는 기제로 나타난다.

필요와 의무의 와중에서 글을 쓸 수 없음에 관해 항시적으로 불평하는”(Keller 132) 특징을 기록한다. 테일러에게 중요한 것은 완성된 시를 쓰는 일보다 성서의 특정한 대목이 주는 의미를 명상을 통해 그림그리기, 옷감짜기, 화폐주조, 제련, 석재 가공, 연극 같은 일상적인 활동의 틀 속에서 유비적으로 형상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다. 이렇게 신의 섭리를 일상적 활동에서 은유적으로 증명해 가는 과정은 곧 섭리를 기록하는 글쓰기의 왜소함에 대한 자의식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 티끌 부스러기,  
 나의 펜을 당신의 찬양에만 쓰도록 만들어졌다오.  
 나의 무딘 상상을 시온의 귀한 돌에  
 기꺼이 버려 날카롭게 세우리.  
 그리고 금빛 액체로 당신의 이름위에 쓰리  
 나의 글자들을, 당신의 영광이 타오를 때까지.  
 I am this Crumb of Dust which is design'd  
 To make my Pen unto thy Praise alone,  
 And my dull Phancy I would gladly grinde  
 Unto an Edge on Zions Precious Stone.  
 And write in Liquid Gold upon thy Name  
 My Letters till thy glory forth doth flame. (Taylor 1, ll. 13-18)

신의 영광을 기록할 임무를 띤 시인의 형편없이 무디고 상상도 결핍된 글쓰기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석공의 석재가공에 비유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온의 돌’이 암시하듯이 성서의 누가복음(Luke) 20장 17절에 나오는 버려진 돌과 연결되어 예수의 이미지를 예형론적으로 상기시킨다. 예수라는 예표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연결시켜주는 기호로 거듭 등장하는 테일러 시의 예형론적 전개는 돌과 언어를 조탁하는(grinde) 과정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가 신약과 구약, 그리고 성서와 신대륙을 연결시키는 역사적 예표보다는 시인의 서로 상충하는 심리 상태를 조화시키는 상징적 기표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수라는 예표는 어느덧 그 자체로 의미있는 시의 대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티끌 부스러기에 불과한 시인의 상상력을 버리는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시인의 버려진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우주 전체를 능가하는 한줌의 티끌로 구현된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중심예표로 삼는 이 모든 예형론적 명상의 과정을 촉발하고 근거 짓는 사태는 자신의 글쓰기가 신의 ‘무한한 신성’(Boundless Deity l. 4)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실패로 점철되어 있다는 인식이다. (Its failings then thou'lt overlook I trust. l. 23) “반짝이는 은유들이라도 (...) 당신에 견주면 한 다발의 도금된 무의미에 불과하죠” (Taylor 142)라든가 “나의 은유들은 단지 낡은 무의미에 매달린 도르래일 뿐”(Taylor 145)이라는 『준비 성찰』(Preparatory Meditations)의 표현들은 가장 날카롭게 버린 인간의 언어인 시조차 신의 섭리를 재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알레고리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 3

이렇듯 청교도 시인들이 구현하는 내파와 알레고리의 시학이라는 구도에서 청교도 담론, 특히 예형론과 그 총아라 할 예레미야 식 탄가를 살펴보면, 브래드스트릿이나 테일러처럼

그 가장 충실한 이행자가 가장 내밀한 해체의 기록자가 되고 사탄처럼 가장 파괴적인 존재가 그 가장 충실한 심판자가 되는 역설이 생겨난다. 이러한 역설은 예레미야 식 탄가의 형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글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가능하다. 예형론의 경우와 비슷하게 탄가 형식도 신과의 은총협약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그 협약의 불이행을 초래한 일탈(backsliding)에 대한 개탄 및 신의 복수에 대한 상기 그리고 개심에의 촉구와 궁극적인 신의 은총의 재확인에 이르는 담론구조를 지니고 있다(Bercovitch 4-6). 그런데 간증하는 인물의 즉흥적이고 극적인 행위가 적극 개입하는 개심서사의 극적 담론과는 달리 예형론과 탄가는 명제-논증-예시로 이어지는 대체로 정형화된 연역의 구조로 인해 극적인 효과가 상당히 소거되어 있고, 일탈에서 은총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건들을 단일한 관념으로 묶어내는 형식논리가 강화되어 있다. 브래드스트릿이나 테일러의 경우 반복된 회의와 욕망의 헛됨이 신의 섭리와 극적으로 대비되면서 청교도 스스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과정이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있으나, 탄가에서는 바로 그 보편적인 개심의 과정이 생략된 채--혹은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채--초기의 순수한 신앙심으로의 복귀만을 다소 공허하게 반복한다. 따라서 예레미야 식 탄가의 형식이 아무리 신의 복수를 상기시키고 예형론을 동원하여 세상의 온갖 현상들을 복수가 압박했다는 증좌로 들이대도, 구체적인 일탈의 주체를 지칭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당위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위글즈워스의 「뉴잉글랜드에 대한신의 논쟁」("God's Controversy with New England")에 묘사된 신의 극단적인 탄식의 목소리가 어느덧 고루하고 권태로운 메아리처럼 들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허나 보라, 은총 하나 없는 관능적 심장,  
강철 목, 도도하고 주재넘은 손,  
우쭐대고, 뻗뻗하며, 완강하고 고집센 족속,  
위협도 두려워 않고, 어떤 명령에도 굽히지 않네.  
독단적이고 괴팍하여 어떤 굴레도 참지 못하니  
복수의 일격을 당해도 마땅한 세대라네.  
But lo, a sensuall Heart all void of grace,  
An Iron neck, a proud presumptuous Hand;  
A self-conceited, stiff, stout, stubborn Race,  
That fears no threats, submitts to no command:  
Self-will'd, perverse, such as can beare no yoke;

A Generation even ripe for vengeance stroke. (Meserole, ll. 281-286)

마치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에서 에머슨이 물질화된 사회를 비판하며 파편화된 인간상을 고발하는 장면(The state of society is one in which members have suffered amputation from the trunk, and strut about so many walking monsters,--a good finger, a neck, a stomach, an elbow, but never a man. Emerson 54)을 예견한 듯한 이 대목은, 에머슨의 비판 대상이 이러한 파편화를 불러온 그 고루한 청교도 전통이라는 점에서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의 공허함은 결국 신 자신--혹은 신의 목소리를 대리한 시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저렇게 목이 뻗뻗해진 족속들을 어찌해야 하나?/ 저들 같은 저 적들을 내가 어찌 떨쳐버릴 것인가?”(ll. 305-306)라고 묻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모든 것을 관장하고 주재하는 섭리의 신이 스스로 대책없음을 고백하는 이 진풍경은, 위글즈워스가 꼭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탄가 형식이 실제로 공동

체가 처한 종교성의 쇠퇴와 신앙심의 위기에 대한 극화라기보다 어떤 고도의 정치성으로 포장된 수사일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한다. 요컨대 위글즈워스가 신의 입장에서 열거하는 일탈의 사례들은 위기의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상상력의 소산에 가깝고, 따라서 청교도 공동체 자체의 실제 위기보다는 예형론과 탄가가 결합된 청교도적 사유와 해석체계의 위기를 극화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을 달리 풀어보면, 청교도들의 시가 예형론을 가장 충실히 재현하는 장르와 형식에 서조차--아니 어쩌면 가장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그 체계를 가장 심각하게 내파하는 주된 근거라는 얘기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파의 시학이 청교도들의 엄격한 사유체계 내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청교도의 논리를 흥미롭게 전개한 백스터(Richard Baxter)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는 왜 재현불가능하다고 믿는 신을 인간은 굳이 재현하려고 노력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비유적인 표현들을 엄격한 법도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해야하기 때문이 아니다. 또는 정신적인 것들의 육화된 착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 양 믿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 즉 정신적인 현상들을 엄격한 법도에 맞춰 인식하거나 말하는 것이 우리의 범위와 능력을 완전히 넘어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4)</sup> (Daly 156)

자신들이 애초부터 불가능의 영역으로 전제한 섭리의 재현을 성서의 언어와 현실간의 합치로 풀어낸 미국 청교도들의 예형론적 사유체계가 시인에게 부여한 역할은 ‘관찰자’(seer)였지 ‘창조자’(maker)가 아니었다(Daly 158). 그런데 시인의 관찰자로서의 임무는 역설적이게도 ‘창조자’의 섭리를 ‘재현’하는 불가능한 책무였다. 창조의 불가능한 재현인 한에서 관찰자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란 맷슨 식의 ‘알레고리적 결정불가능성’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그 불가능한 재현행위를 인정한 바탕위에서 은유와 비유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일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한 행위로 남아 있는 한 시인들은 어떤 은유가 진리를 더 담보하느냐는 수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섭리를 재현하는 인간의 언어--은유로서의 언어--가 과연 믿을만한 재현의 수단인지 끊임없이 되물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는 진리 곧 로고스에 대한 문학적 재현의 가능성과 관련된 존재론적인 의문인 동시에 테일러의 시가 드러내듯이 과연 무한성(infinity)으로서의 섭리를 한갓 ‘무’(nothing)에 불과한 인간이 자신의 이성이나 감성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재현가능한가라는 인식론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섭리에 다가서려는 인간의 불온하지만 거의 유일한 재현수단인 언어 및 비유의 자의성은 환유(metonymy)의 문제, 곧 섭리를 표현하는 상징 혹은 예표들 간의 근본적인 미끄러짐을 제기한다. 청교도들 자신도 또렷이 의식하지 못한 채 예형론과 성찰, 개심과 탄가의 형식에 부단히 포섭하려던 ‘알레고리적 결정불가능성’은 철학의 아포리아처럼, 섭리의 재현이, 아니 때로는 섭리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룩되고 창조된다는 관점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청교도들은 예형론을 진심으로 믿었다기보다 진심으로 믿고 싶은 자신들의 내밀한 욕망을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거듭거듭 확인하고 싶어 했던 셈이다. 그리고 시인들은 예형론이 주장하는 두려움과 복수의 언어들이 실은 가장 허약하고 믿음 없는 자들의 저주였음을 은밀히 정신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버코비치는 미국적 자아가

4) 원문을 옮겨보면, “No, no that we should take the Spirit's figurative expressions to be meant according to strict propriety: or have fleshy conceivings of spiritual things, so as to believe them to be such indeed: But this, to think that to conceive or speak of them in strict propriety, is utterly beyond our reach and capacity.”

바로 이러한 청교도적 예형론의 총아로서 탄생하며 미국문학 역시 바로 이 예형론의 문학적 형상화라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브래드스트리트와 테일러의 시들이 보여주는 청교도들의 일상과 내면은 오히려 바로 그러한 청교도들의 미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에 압도되지 않는 독특한 내면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어떤 면에서 그들 시의 화자는 선뜻 ‘미국인’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다. 만일 매일의 성찰과 반성에 충실한 그들의 ‘청교도’로서의 자기인식을 우리가 ‘미국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독립혁명 이후 프랭클린 등에 의해 구조된 패턴화된 미국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인의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일 것이다. 따라서 브래드스트리트에서 에밀리 디킨슨의 모습을, 테일러의 시에서 프로스트의 모습을 겹쳐 읽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닐 터이다.

#### Works Cited

- 강우성. 「매더, 테일러, 에드워드」 『영미문학의 길잡이 2』 창작과비평사 2001: 29-40.  
 신광현. 「시간/주체/언어: 폴 드 만의 「시간성의 수사」」 『현대 비평과 이론』 10 (1995): 144-169.  
 Benjamin, Walter. *The Origins of German Tragic Drama*. 1928. Trans. John Osborne. London: New Left Book, 1987.  
 Bercovitch, Sacvan. *American Jeremiad*. Madison: U of Wisconsin P, 1978.  
 Bradstreet, Anne. *The Works of Anne Bradstreet*. Ed. Jeannine Hensley. Cambridge: Harvard UP, 1967.  
 Brumm, Ursula. "'Tuning' the Song of Praise: Observations on the Use of Numbers in Edward Taylor's *Preparatory Meditations*." *Early American Literature* 17 (1982): 103-118.  
 Daly, Robert. "Puritan Poetics: The World, The Flesh, and God." *EAL* 12 (1977): 136-162.  
 Davis, Thomas M. "Editing Edward Taylor." *Studies in Puritan American Spirituality* 1 (1990): 19-27.  
 de Man, Paul. *The Resistance to Theor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6.  
 Emerson, Ralph Waldo. *Essays and Lectures*. Ed. Joel Porte. New York: The Library of America, 1983.  
 Feidelson, Charles, Jr. *Symbolism and American Literature*. Chicago: U of Chicago P, 1953.  
 Gelpi, Albert. *The Tenth Muse: The Psyche of the American Poet*. Cambridge: Cambridge UP, 1991.  
 Heimert, Alan and Andrew Delbanco. ed. *The Puritans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1985.  
 Keller, Karl. "The Example of Edward Taylor." *The American Puritan Imagination: Essays in Reevaluation*. Ed. Sacvan Bercovitch. Cambridge: Cambridge UP, 1974. 123-138.  
 Knaller, Susanne. "The Theory of Allegory beyond Walter Benjamin and Paul de Man." *The Germanic Review* 77 (2002): 83-101.  
 MacDonald, Michael J. "Rigorous Mortis: Allegory and the End of Hermeneutics." *Studies in the Literary Imagination* 28 (1995): 107-117.  
 Madsen, Deborah L. *Allegory in America: From Puritanism to Postmodernism*. New York: St. Martin's, 1996.  
 Meserole, Harrison T. ed. *American Poetry of the Seventeenth Century*. University Park: Penn State UP, 1993.  
 Mignon, Charles W. "Christ the Glory of All Types: The Initial Sermon from Edward Taylor's 'Upon the Types of the Old Testament.'" *William and Mary Quarterly* 3rd. 37 (1980): 286-301.  
 Munk, Linda. "Edward Taylor: Typology and Puritanism." *History of European Ideas* 17 (1993): 85-93.  
 Murphy, Francis. "Anne Bradstreet and Edward Taylor." *Columbia History of American Poetry*. Ed. Jay Parini and Brett C. Miller. New York: Columbia UP, 1993. 1-15.  
 Pearce, Roy Harvey. *The Continuity of American Poetry*. Middletown: Wesleyan UP, 1987.  
 Richardson, Robert D. "The Puritan Poetry of Anne Bradstreet." *The American Puritan Imagination: Essays in Reevaluation*. Ed. Sacvan Bercovitch. Cambridge: Cambridge UP,

1974. 105-122.

Rowe, Karen E. *Saint and Singer: Edward Taylor's Typology and the Poetics of Medita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86.

Scheick, William J. "Taylor's 'Prologue'" *The Explicator*. 55 (1996): 12-14.

Taylor, Edward. *The Poems of Edward Taylor*. Ed. Donald E. Stanford.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60.

Waggoner, Hyatt H. *American Poets from the Puritans to the Present*. New York: Delta, 1968.

## Abstract

### A Poetics of Implosion: Typology and Allegory in American Puritanism

Woosung Kang (Hansung Univ.)

Unlike traditional genre conception, the typology in American Puritanism capitalizes on the literal as well as symbolic connection between biblical figures and the historical events of colonial New England. Intent on the allegorical implication of typology, I explore poetic achievements of Puritan poets like Anne Bradstreet and Edward Taylor, especially the 'epistemological skepticism' of their meditative poems. Allegory, often suppressed by strong typological drive of Puritan hermeneutics, turns out to facilitate the moment of implosion within the structure of that very tight typology. Bradstreet's silently-defiant female personae and Taylor's ever-doubting writership both represent the poetics of allegorical implosion in the fiction of Puritan typology. Allegorical indeterminacy in the 17th century Puritan poetics marks the triumph of the literary in American literatures against religious literalism.

Keywords: Allegory, Typology, Implosion, American Puritanism, Indeterminacy, Literalism  
(알레고리, 예형론, 내파, 미국의 청교도주의, 불확정성, 축자론)